

# 북한의 농촌 마을배치 및 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ural Settlement and Rural House Planning in North Korea

이 왕 기\* 오 영 식\*\*  
Lee, wang-ki O, young-sik

###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rural settlement and housing planning in North-Korea.

All the housing facilities belong to the government in North-Korea, which leads to the system in which the North-Korea government controls all the housing problems.

The North-Korea government actively engages in the settlement of housing problems have close relations with and effects on the urban housing ones.

The government has designed to make the rural areas self-sufficient in matters of the rural housing arrangement.

They try to make an axis in the middle of each village uniformly and heighten its symbolism of the rural.

They place all the symbolic structures in the center to express the ideas of the ruler's, thus making the whole village a study hall where the villagers are forced to learn the ruler's ideas as a way of brainwashing the people.

키워드 : 북한의 농촌, 농촌마을, 마을배치, 주거계획,

Key word : Rural of North Korea, Rural Settlement, Site Plan of Rural Settlement, Rural House Planning

### 1. 서론

남한에서 북한의 주거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상황으로 인해 이 방면의 연구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 북한의 주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가 쉽게 입수되지 않은 것도 연구를 부진하게 만든 이유이다. 북한의 자료가 쉽게 입수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자료가 남한처럼 잘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공개되었어도 연구자 개인에게 잘 열람이 안된 이유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동안 북한의 주거에 관한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농촌 주거단지 및 주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사회주의의 주거개념을 바탕으로 주거단지 계획방법과 단위주거 계획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범위는 농촌지역의 주거지 계획과 주택계획에 관한 개념과 방법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북한측 관련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론을 채택하였다.

\* 목원대학 교수.

\*\* 태성전문대학 조교수, 청주대학박사과정

## 2. 북한 사회주의에서의 주거개념

북한에서는 주거건축의 순수한 우리말로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널리 쓰고 있다.

북한에서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는 '주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나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실시한 60년대 중반부터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현재는 이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근거하여 모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주택도 다른 물질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제적, 계급적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하나 주택 그 자체만은 계급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택 자체만은 계급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론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층에 따라 주거형태와 면적이 다르다.

1992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0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라고 하여 모든 주택을 국가소유의 근거를 만들고 동법 28조에는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라고 하여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이용권은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은 인간이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창조된 하나의 물질적 부(富)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주거문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

거문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사회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 3. 농촌주거단지 및 주택계획

해방직후부터 북한 사회에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과 결부되어 도시적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였다.

농촌문제는 곧 도시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농촌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것은 또한 도시가 농촌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부터 시행되었던 소규모의 농촌 주거지 계획은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1958년도에는 「농촌부락계획」, 「농촌주택 및 공공 건물의 설계」라는 도서를 발간하여 농촌의 주거지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농촌 주거지계획 개념은 공동경작과 공동생산을 기본으로 농장원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을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공공장소를 통한 사회주의 교양, 기술교양을 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주거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주거지 계획방법론이 발표되기도 했다<sup>1)</sup>. 그 구체적인 계획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단위 조직체계를 규정할 때에는 각 농장이 치한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건설경영비가 적게 들도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 편의 기관들은 그의 성격과 규모, 입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주지역과 가장 편리하게

1) 김광윤, 농촌 부락 생활단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건축과 건설, 1964. 4

연결되면서 깨끗한 곳에 놓아야 한다.

마을의 규모가 클 때는 문화 행정 중심과 편의 봉사 중심부를 따로 두어 이용하는데 번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을의 규모가 작을 때는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봉사에도 편리하며, 토지도 절약하고, 시설비도 적게 든다.

특히 농촌 공공 편의 기관들을 기능과 사명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한 건물 안에 두거나 건물을 통합할 수도 있다.

농촌 주택지구는 농장 및 부락영역의 특성, 주택형, 층수, 부속건물의 배치방법에 따라 전원형과 비전원형 2가지로 구분된다. 주택군의 형식 또한 주택형, 층수, 지형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계획된다.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간선도로를 만들고, 간선도로에 따라 주택군을 배치하고 작은 도로를 이용하여 이 주택군을 연결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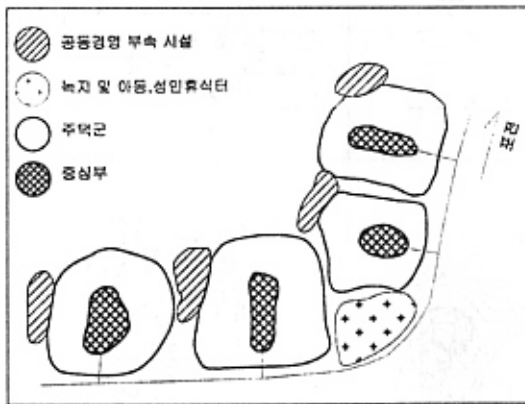


그림 1. 비구획식 주택배치개념

기본가로에서 주택군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막다른 골목형(Cul-de-sac)이나 꺾어진 골목형(Hoop type)으로 계획하여 내부 공공녹지를 여러개 분할하지 않도록 한다.

주택군의 규모는 농장의 특성에 따라 200~600명의 주민을 가진 5~12동의 저층 주택으로 해결한다<sup>2)</sup>.

주택군에서 생활의 필수적인 부속건물들은 최대 70m 반경 내에 주택군 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한다. 녹지 및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군 안뜰에 배치해 둔다.

주택군은 동일한 층수보다 서로 높이와 폭이 다른 것들을 섞어 서로 조화되도록 배치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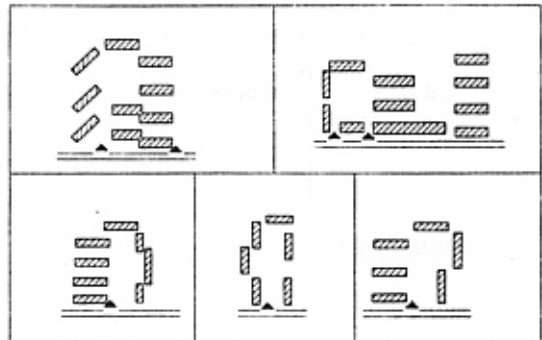


그림 2. 주택군의 배치 실례

이와 같은 농촌에서의 주거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은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첫째, 생산 경작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작지는 반경 2km이내에 둔다. 그러나 평지일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산간일 경우 이보다 좀 작아야 한다.

둘째, 가능한 경작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한다. 주택지를 지세가 조금 높은 경사지를 이용함으로써 경작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변 가까운 곳에 음용수에 적당한 수원지를 확보하여 높은 곳에 저수조를 만들어 두도록 한다.

넷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농촌주거단지는 공업생산지와 다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전사용으로 철도와 200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한다. 저수지 아래 부분에는 주거지를 만들지 않고, 산지의 주택은 유사

2) 이 정도의 인구는 흔히 인보구(100가구)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황기, 오영석

시 후방병원과 전시시설로 사용하도록 한다<sup>3)</sup>.

이 주거계획은 농촌의 규모에 따라 단지규모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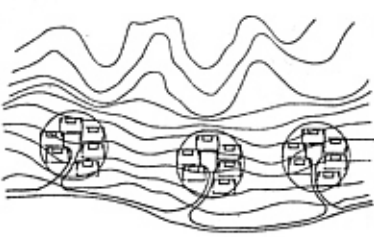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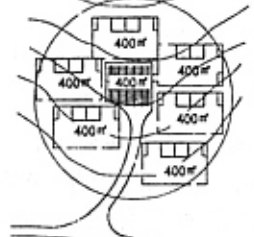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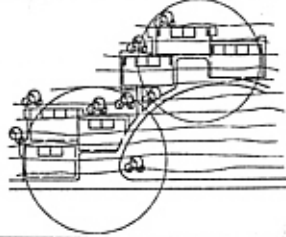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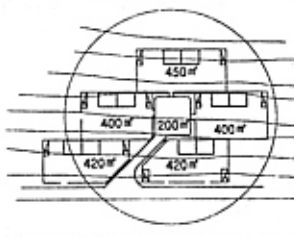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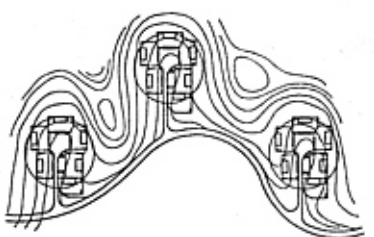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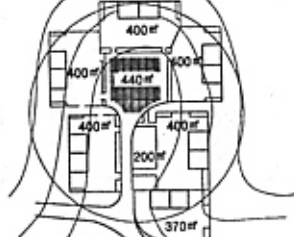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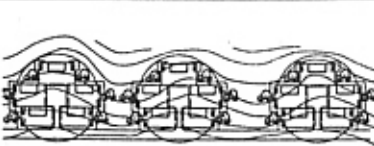

단지의 규모는 '중심주거지역'과 '기본주거단지', 그리고 '분조' 규모로 나누어진다.

'중심주거지'는 합작농장관리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작업반을 두고있다. 작업반의 규모는

100~200가구이며, 경작지 규모는 1,500~2,000m<sup>2</sup> 정도이다. 이에 따라 단지의 규모는 200가구 이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가구 정도인 곳도 있다.

'기본주거단지'의 규모는 1개의 작업반을 두고 가구는 약 100가구 정도가 된다. 평야지대는 이보다 좀더 클 수도 있다.

표 1. 농촌마을의 주거지(분조규모) 배치계획(자료: 『건축과 건설 1967. 5』)

위치	세대규모	전체배치도	단위배치도
농경지대의 구릉(1)	8~12		
농경지대의 구릉(2)	30~50		
깊은 골짜기	6~12		
얕은 골짜기	10		

3) 查家德·高承增·謝若松, 朝鮮農村居民點規劃設計, 『建築學報 1978年 第3期』, p.17. 中國建築學會

'분조'마을의 규모는 약 10가구 내외이다.

평야지대에는 일반적으로 중심주거단지와 기본주거단지 2개만 둔다. 각 주거단지의 규모는 그 지역의 경작지 분포와 작업반의 크기,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분조의 규모는 대체로 5~12세대이고, 작업반 규모는 25~50세대이다. 주택의 대지조건은 지형조건과 농업생산직 구성을 감안하여 경작지와 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지 않도록 단위로 묶어둔다. 그리고 생활단위와 생산단위조직에 따라 2~3개의 주택군을 한데 묶어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택은 1동 2세대로 1동의 규모는 11.4m×4.5m이다. 마당을 포함한 동당 면적은 울담안에 채소밭을 둘 경우 380~400m<sup>2</sup>이고, 담안에 채소밭을 두지 않을 경우 220~240m<sup>2</sup>로 한다.

구체적인 배치방법은 표 1과 같다<sup>4)</sup>.

농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1960년대의 표준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한 결과 많은 계획안이 출품, 전시되기도 했다.

그 중 몇 개의 안을 보면 평면은 대개 '一'자형 평면이지만 간혹 'ㄱ'자형 평면도 있다. 면적 규모는 작은 것은 약 36m<sup>2</sup>이고, 큰 것은 약 54m<sup>2</sup> 정도이다. 입면은 기와를 올린 팔작이나 맞배지붕이다[그림3].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2가구 연립의 표준 주택 계획안이 1966년 발표되었다. 이 평면을 보면 '一'자형으로 2가구가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병렬 배치되도록 하였다. 1동의 면적은 51.3m<sup>2</sup>(가구당 25.65m<sup>2</sup>)이며 방, 부엌을 하나씩 두고 작은 창고와 벽장을 둔 소규모 주택이다. 부엌과 방에는 별도로 외부와 통하는 문을 두었고, 입구 쪽으로 빗마루를 설치해 두었다. 입면은 간단하게 박공형 기와지붕을 올렸다. 평양도시설계연구소에서 발표한 2층 표준주택안은 몇 가지 계획의 특징을 제안하고 있다.

4) 농촌 마을계획에서 묶음식 주택배치 방법, 건축과 건설, 공업출판사, 1967. 5,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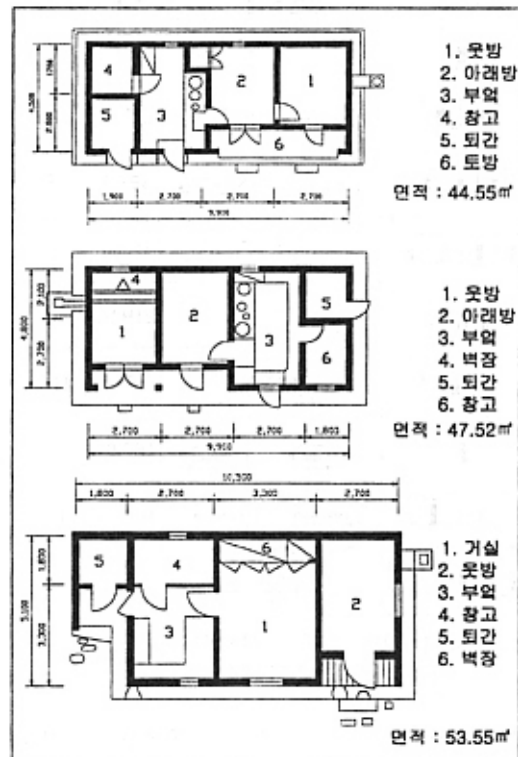


그림 3.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첫째, 주거실이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면하고, 세대내의 통풍과 세대간의 차음 및 동선, 시각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동계단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층별로 세대를 구성하면서 각 세대 단위로 정원을 지니는 정원형 주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건립 위치의 자연기복과 도시계획상 요구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독립 색찌야형<sup>5)</sup>, 지그재그형<sup>6)</sup> 직선형 등 임의로 배치할 수 있으며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입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그림 4].

- 5) 우리나라의 유행 아파트와 같은 것이다. 하나의 계단홀을 2~3세대가 공유하는 평면형이다. 러시아 말이다.
- 6) 벽을 중심으로 세대당 평면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평면이다.

세대구성	입면형태	연면적	세대수
		111.42	4
		217.08	8
		322.74	12
		428.4	16
		218.16	8
		324.9	12
		187.02	4
		368.28	8
		552.40	12

그림 4. 1·2층 주택의 다양한 배치계획  
(자료 : 「건축과건설」 1966년 7월)

1967년도에 건설된 농촌주택 표준설계의 2가지 유형 중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2가구 연립 단층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방 2개와 부엌, 창고를 두었으며, 헛간을 부엌 외벽에 붙여 두었다. 필요에 따라 이 헛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방에는 작은 벽장을 하나씩 설치하였다. 전체 건축면적은 47.25m<sup>2</sup>이고, 헛간이 없을 때는 42.21m<sup>2</sup>가 된다. 2개의 방 앞에 빗마루를 두고, 기와지붕을 올렸다[그림 5].

2가구 연립 단층주택은 크기가 다른 세대평면이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되었다. 하나는 방이 2개이고, 다른 하나는 방이 하나이다. 평면 배치는 방을 가운데로 두고 부엌을 밖으로 배치하였다. 가운데 3개의 방 앞에는 길게 빗마루를 설치하였다.

2가구로 구성된 1동의 건축면적은 59.4m<sup>2</sup>인데 방이 2개인 2방 세대는 33.75m<sup>2</sup>이고, 방이 하나인 세대는 25.65m<sup>2</sup>이다. 입면은 박공 기와지붕을 올린 단층주택이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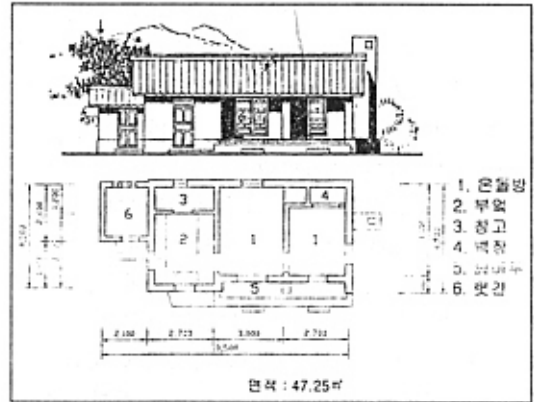


그림 5. 1967년도 농촌주택 표준설계(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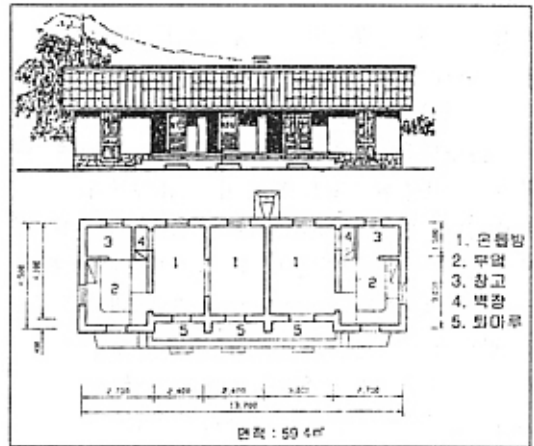


그림 6. 1967년 농촌주택표준설계(2가구 연립)

이와 병행하여 농촌주택의 건설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족한 건설 자재와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 콘크리트로 얇은 판과 콘크리트 기둥부재를 이용한 '경관 조립식 주택'과 싸리를 철근 대용으로 사용한 '싸리근 콘크리트'를 들 수 있다.

경관 조립식 주택은 구조적으로 골조형식인데 줄기초 위에 별도로 만든 28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두께 약 4cm의 콘크리트 판을 수평수직으로 조립해 가는 방법이다<sup>7)</sup>. 말하자면 일

7) 양진영, 경관 조립식 농촌주택 시공, 건축과 건설, 1964. 9

중의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이라고 하였다.

싸리근 콘크리트는 건설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철근대신 싸리나무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1958년 「싸리근 콘크리트 부재에 의한 농촌 문화주택 건설」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싸리근 공법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농촌 주거단지 계획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단지계획은 각 도의 건설위원회 소속의 농촌 계획설계소에서 전체 국토계획에 따라 지역계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지역계획은 합작농장을 단위로 국토계획의 요구에 따라 주거단지의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고, 공업생산지와 농업생산지의 위치, 주요 공공시설의 규모와 분포를 정한다. 도로망과 수로망의 방향을 정하고, 전력망과 통신망, 그리고 상하수도의 방향을 정하며 제방공사를 결정한다.

세부계획은 지역계획의 구상에 따른 하나의 주거단지 상세계획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위치와 공공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도로, 상수도, 제방, 전력,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데 장기는 10년이고, 단기는 2년이다. 장기계획은 농장의 10년간 발전계획과 결부시켜 일정하게 안배하는 것이다.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매년마다 다음 2년의 단기 건설계획을 작성한다. 이것을 도 건설위원회에 보고하면 비준을 받은 후 그해의 건설계획을 착수한다. 그 다음 군단위로 하달되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계획설계가 없으면 시공할 수가 없다<sup>8)</sup>. 몇 개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 3.1. 통천읍 배치계획

통천군 통천읍은 원산시와 금강산 사이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다. 서쪽은 태백준령의 줄기인 황룡산과 우등산이 둘러져 있고 동쪽과 북쪽으

로는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해안에는 절경지 총석정과 시중호, 동정호 등 아름다운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총석정은 예로부터 관동팔경으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절경지이다.

시내 중심으로는 고저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바다로 이어진다. 강 하구에는 작은 고저항이 자리잡고 있으며 항구의 가운데 석탄산이, 양끝에는 총석산과 작은 언덕이 솟아 포구를 막아준다.

도시는 크게 입구부분, 중심부분, 보조부분으로 나누어진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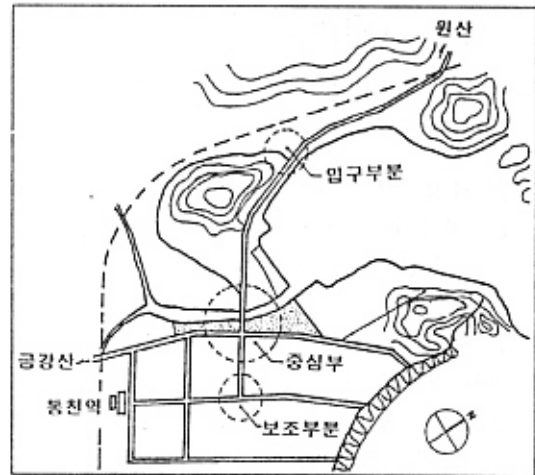


그림 7. 통천읍 배치계획

입구부분은 원산방면에서 읍내로 들어오는 석탄산 아래인데 여기에는 주택들을 배치해 두었다.

중심부분은 고저천을 중심으로 강변 양쪽에 각종 시설물을 배치해 두었다. 남북방향의 중심가도가 고저천을 가로질러 나있고 강 남측에 동서로를 배치했다. 이 2개의 도로가 만나는 4거리가 시내의 중심이 된다. 일반 도시에서 흔히 기본적으로 계획하는 사상교양 시설 김일성사상연구실과 기념비는 4거리의 동편에 배치하고 주변은 녹지를 만들어 두었다. 4거리의 남측에 문화회관과 도서관, 상점 등을 두고 북측에는 고저천 건너에 인민병원과 주택 등을 배치했다.

8) 查家德·高承增·謝若松, 朝鮮農村居民點規劃設計. 「建築學報 1978年 第3期」 16쪽. 中國建築學會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서측에는 경기장 등을 배치해 두었다. 고저천의 남측을 따라 길게 녹지를 만들어 두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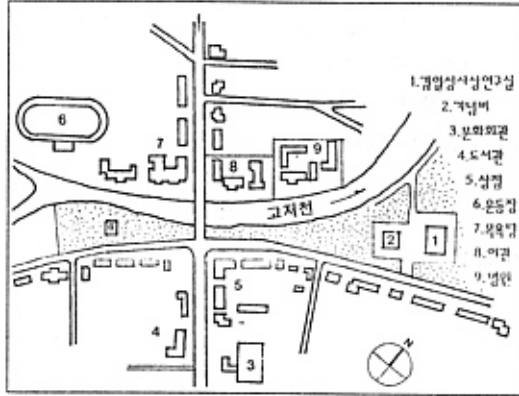


그림 8. 통천읍 중심부 배치계획

읍 중심부의 주택은 3, 5, 7층 규모로 하고 공공시설과 함께 배치하여 중심부의 경관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조성하였다.

보조부분은 중심부분의 동남측에 두었는데 주로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무소 건물과 편의시설들을 조성해 두었다.

통천역은 중심의 4거리에서 남측에 배치해 두고 철로는 읍내의 서측 외곽 석탄산 뒤쪽을 돌아 원산방면으로 이어진다.

산업시설들은 중심으로부터 좀 떨어진 변두리에 배치하였다.

일반적으로 구릉지를 배경으로 넓은 들을 앞에 두고 있는 다른 마을의 지형조건과는 다르다. 즉 읍내 중심에 내가 흐르고, 주변에 3개의 불록 솟은 동산이 있다. 또한 중심부 가까이 작은 항구가 있으며 조금 떨어져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른 마을에 비해 녹지와 오픈공간이 많아진 것 같다.

이 곳은 원래 조그만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군소재지 규모로 커졌다. 인근에 총석정과 같은 유명한 관광자원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오국리마을 배치계획

안악군 오국리는 1970년대 중반에 완공된 도시형 농촌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마을은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북한 당국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범적으로 만든 것이다. 농촌마을이라고 하지만 주택의 호수가 1,300여 호나 되기 때문에 마을로 보기에는 규모가 큰 편이다.

마을의 배치계획은 우선 크게 거주지역과 생산지역으로 나누었다. 거주지역은 일조가 좋은 구릉을 배경으로 북측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 생산지역을 배치하였다.

기존의 1,300여호 주택을 5개의 생활기본단위로 묶어 새롭게 계획하였다.

도로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직선과 사선으로 내고, 수로를 정비하여 외곽으로 돌려 북에서 남으로 흘러 강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수로 중간 중간에는 우수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두었다.

마을의 중심은 남쪽의 들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언덕 구릉지 위에 두고 여기에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 김일성 현지교시비와 문화회관, 관리동, 식당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측과 북측에 공업생산시설을 배치했다. 인민학교와 중학교는 단지의 북측 중심부 약간 높은 곳에 배치해 두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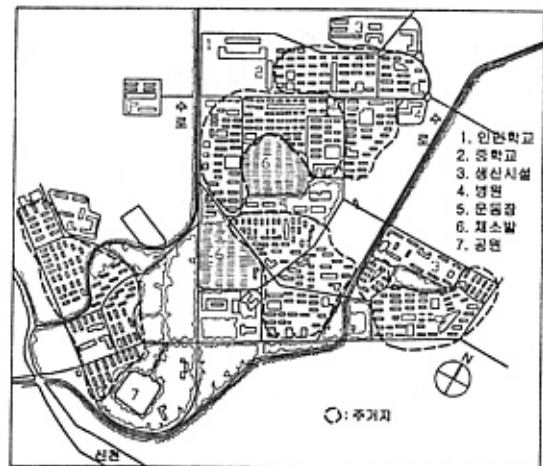


그림 9. 오국리마을 배치계획도



마을 중심부 뒤에는 과수원을 두었다.

주택의 배치는 기존의 마을배치를 고려하여 크게 5개 구역으로 묶어 분산 배치하고 매 생활단위는 2~3개의 작업반으로 계획하였다. 생활단위의 세대수는 마을의 지형조건과 크기를 고려하여 220~310세대로 설정하여 각 생활단위마다 탁아소, 유치원, 농업과학 기술지식 선전실을 비롯하여 상점, 이발소, 재봉소, 빨래주문소 등 기본적인 생활복지시설과 농부산물 수매소를 배치하였다<sup>9)</sup>.

주택은 1층 단독주택 또는 2층 공동주택으로 표준설계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주택은 주도로에서 30m, 안길에서 20m정도 떨어져 배치하고 가능한 한 언덕을 배경으로 남향이 되도록 했다. 주택이 2층일 경우 인동간격은 10~11m가 되도록 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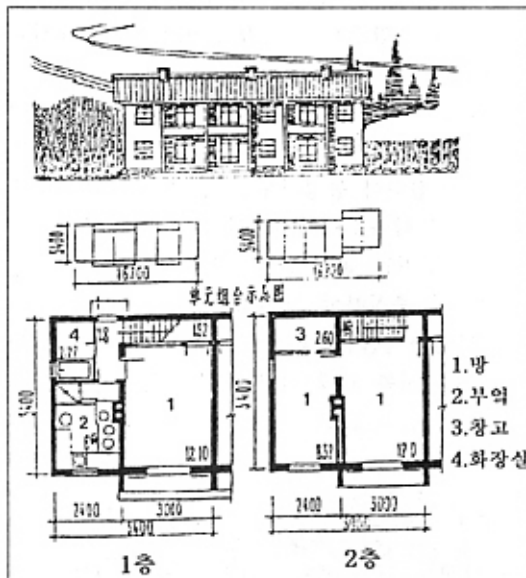


그림 10. 오곡리마을 주택계획

주거단지에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변에 농업생산지를 두고 단지 내에는 특별히 2개의 채

9) 안병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길이 전할 역사의 땅 오곡리 『조선건축 1995년 3호』 및 리화선, 조선건축사(2), p.341

소 경작지를 만들어 특산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어느 도시, 마을과 마찬가지로 오곡리 마을의 중심부에 김일성사상연구실을 배치한 것은 단순한 생활터전으로서 마을이 아니라 사상교양의 장소로서 이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64년 2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면서 농촌의 자립과 농업문제, 나아가 도시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침을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적 농촌마을 계획중 하나가 바로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오곡리 마을계획이다.

이 마을계획은 당시 중국의 정책당국자에게도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중국의 많은 건축가들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 3.3. 오현리 거미대마을 배치계획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마을은 해주와 은빛 사이의 철도 중간역인 봉서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1962년 1월 김일성이 방문하였다는 곳이다.

동서로 긴 마을의 서쪽 끝에 봉서역이 자리잡고, 중간지점에 김일성사상연구실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부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북쪽으로 구릉이 형성되고 남으로 점점 낮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를 배치한 마을구조이다.

마을 중심부에서 북측 구릉 가까이에 김일성사상연구실을 배치하고 연구실 남측 전면에 광장과 사적비, 현지교시비를 두어 사상교양장소가 되게 하였다. 봉서역 남쪽에서 출발하여 동서로 길게 주 간선도로를 두고, 봉서역 북쪽에서 비스듬히 중심광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두었다. 마을 동쪽 끝에서 남북으로 교차되는 또 하나의 도로를 두었다.

주택의 배치는 중심부 광장을 사이에 두고 크게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공동시설의 배치는 마을 중심부에 광장과 상점, 문화회관, 종합편의시설, 유치원 등을 두고 북측 구릉 위에 탈곡장, 관리위원회를 두었다. 탁아소는 서쪽의 역사 가까운 곳에 두고, 동쪽

끝에 학교를 배치해 두었다. 동남 모서리부분에는 양어장, 창고, 기계화 분조지구, 수리소, 축산 시설 등 생산관련시설을 배치하고 남쪽의 터진 곳은 경작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병원도 생산 시설구역 가까운 곳에 배치하였다.

주택의 배치는 경작지를 크게 범하지 않는 구릉의 끝자락을 이용하도록 하고 주택은 2~3칸의 단층주택과 2,3층 주택을 적당히 혼합 배치하였다. 이 경우 단층은 구릉 쪽으로 배치하고, 중층주택은 그 앞쪽으로 배치하였다<sup>10)</sup>[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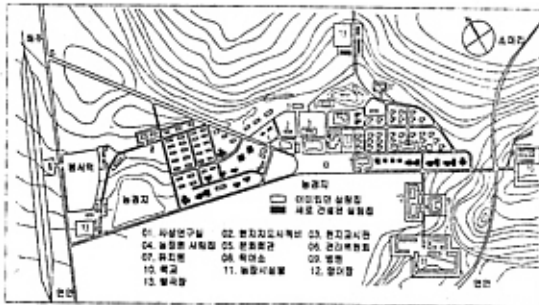


그림 11. 오현리 거미대마을 배치도

이 마을도 어느 마을과 다름없이 중심부에 김일성 관련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주민 사상교양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도시문제의 해결은 농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자급자족과 편의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농촌마을의 발전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촌의 생활조건을 도시생활 못지 않게 계획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 자립기반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협동농장과 소규모 생산공장을 농촌마을에 세웠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62년 농촌건설사업규정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돕도록 하였다.

오곡리 마을의 개발은 이러한 국가적인 개발

10) 안병배,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1991년 3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나아가 복지를 위한 병원, 편의시설을 마을 내에 두고 있다. 아마 김일성이 직접 방문했던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며 이 방문으로 인하여 시설계획에 특별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 3.4. 석하리 양지마을 배치계획

남신의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마을은 신의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km떨어진 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 앞쪽에는 석두산이 높이 솟아있고 그 기슭에는 남신의주에서 피현으로 가는 철길과 큰길이 있다.

양지마을이 자리잡은 지대는 그리 높지 않은 야산들로 둘러막혀 반달모양을 이루고 있다<sup>11)</sup>.

주도로는 마을 앞으로 휘어져 돌아가고 주도로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샛길을 두었다.

마을의 중심부는 예의 없이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과 광장을 두고 현지교시관을 세워 두었다. 광장에 인접하여 농장사무실, 상점, 종합편의시설, 합숙, 식당, 탁아소-등을 배치하였다. 이 중심시설로 인해 주거는 동서로 양분되었다. 탁아소는 동쪽 주거의 중심부에 배치하였고, 생산시설과 관련된 작업반선전실, 공동창고, 정미소, 닭우리 등은 마을의 서쪽 끝에 집단화 시켰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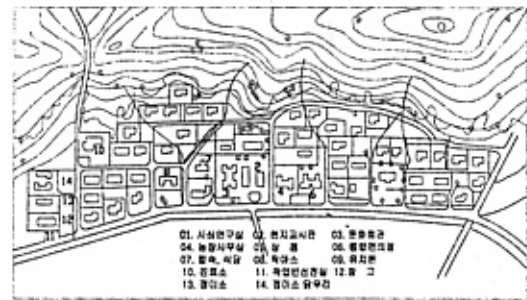


그림 12. 석하리 양지마을 배치계획도

11) 최익주, 공산주의촌 석하리 양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1995년 3호』

마을 중심부의 광장을 교양마당이라고 하며 마을의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 이곳을 이용하게 된다.

주택은 모두 남향으로 배치하였는데 2~3층 크기의 연립형 주택을 몇 개씩 묶어 하나의 군집단위로 하고 이 군집 단위마다 300~400m<sup>2</sup>의 공동마당을 만들어 두었다. 이 공동마당은 주민들이 휴식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이용하며 주택의 뒤쪽 경사를 이용하여 간단한 창고와 가축우리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 마을 역시 사상교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심광장에 김일성 관련시설을 배치한 것은 여타 마을과 다름이 없다.

최근 이와 유사한 마을이 평안북도 구장군 송호리 하송마을에서도 계획되었다. 규모와 마을배치, 중심부의 공공시설, 주거동의 군집배치 등 석하리 양지마을과 거의 유사하다<sup>12)</sup>.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마을계획은 규모만 다를뿐 기본적인 배치개념은 거의 비슷하다.

## 5. 결론

주거문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사회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도시문제와 더불어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주거문제는 곧 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생산수단을 모두 국가가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사회의 생산수단을 국가소유로 한 것은 마르크스나 엥겔 등이 당시 영국의 도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해 보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개혁주의자들은 도시악(惡)을 자본주의

의 잘못된 운영, 사유재산제도의 오용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생산시설을 국유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대도시란 구조적으로 농촌으로부터 유출된 인구증가로 형성되었기에 농촌의 회생 위에 성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대도시를 지양하고 소도시를 선호하게 되었다. 계급성이 없는 도·농의 구별이 없는 작은 도시가 그들이 그리는 이상도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인구가동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개념 속에서 도시의 인테리 자본가들이 농촌의 농민, 노동자를 착취하는 모순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도·농이 종속이 아닌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시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촌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 농촌마을의 계획개념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독자적인 마을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농촌에서의 주거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첫째, 지형조건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생산 경작지를 가까이 두도록 한다. 둘째, 가능한 주거지는 경작지를 잠식하지 않는 구릉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셋째, 반드시 식수원을 확보하고 높은 곳에 저수조를 만들어 두도록 한다. 네 번째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계획개념을 바탕으로 농촌 주거지를 계획하며 계획된 사례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을 배치에 반드시 사회주의적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마을이든 중심부에 강한 축을 설정하고 모든 건축, 조형물은 이 축선을 기준으로 강한 상징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축선에 개인 숭배물이나 조형물을 세워

12) 김병희, 새로 건설되는 송호리 하송마을 『조선건축 1997년 1호』

이왕기, 오영식

두는 것이다. 이는 마을자체를 사상교양의 장소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광윤, 「농촌 부락 생활단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건축과 건설 1964년 4월호」
2. 김병희, 「새로 건설되는 송호리 하송마을」 「조선건축 1997년 1호」
3. 김 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연구」 「국토 계획 29권 2호」 대한국토계획학회. 1994. 5.
4. 리화선, 조선건축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5. 查家德·高承增·謝若松, 「朝鮮農村居民點規劃設計」 「建築學報 1978年 第3期」中國建築學會
6. 안병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길이 전할 역사의 땅 오국리」 「조선건축 1995년 3호」
7. 안병예, 「연안군 오형리 거미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1991년 3호」
8. 양진영, 「경관 조림식 농촌주택 시공」 「건축과 건설 1964년 9월호」 공업출판사
9. 이왕기, 「북한의 현대건축(1)~(3)」 「플러스 제 94·95·97호」 1995. 2,3,5월
10. 이왕기, 「북한의 현대건축양식」 「건축·도시 환경연구 제3집」 목원대학교 1995.12.
11. 이왕기, 「북한 현대건축의 사회주의적 성향과 조형성」 「습1996년 겨울호」 기린산업 1996.12.
12. 이왕기, 「통일후 평양의 도시·건축에 대하여」 「이상건축 제61호」 1997. 9
13. 이왕기,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 「'98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1998.9
14. 최익주, 「공산주의촌 석하리 양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1995년 3호」
15. 「농촌 마을계획에서 묶음식 주택배치 방법」 「건축과 건설 1967년 5월호」 공업출판사